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MAY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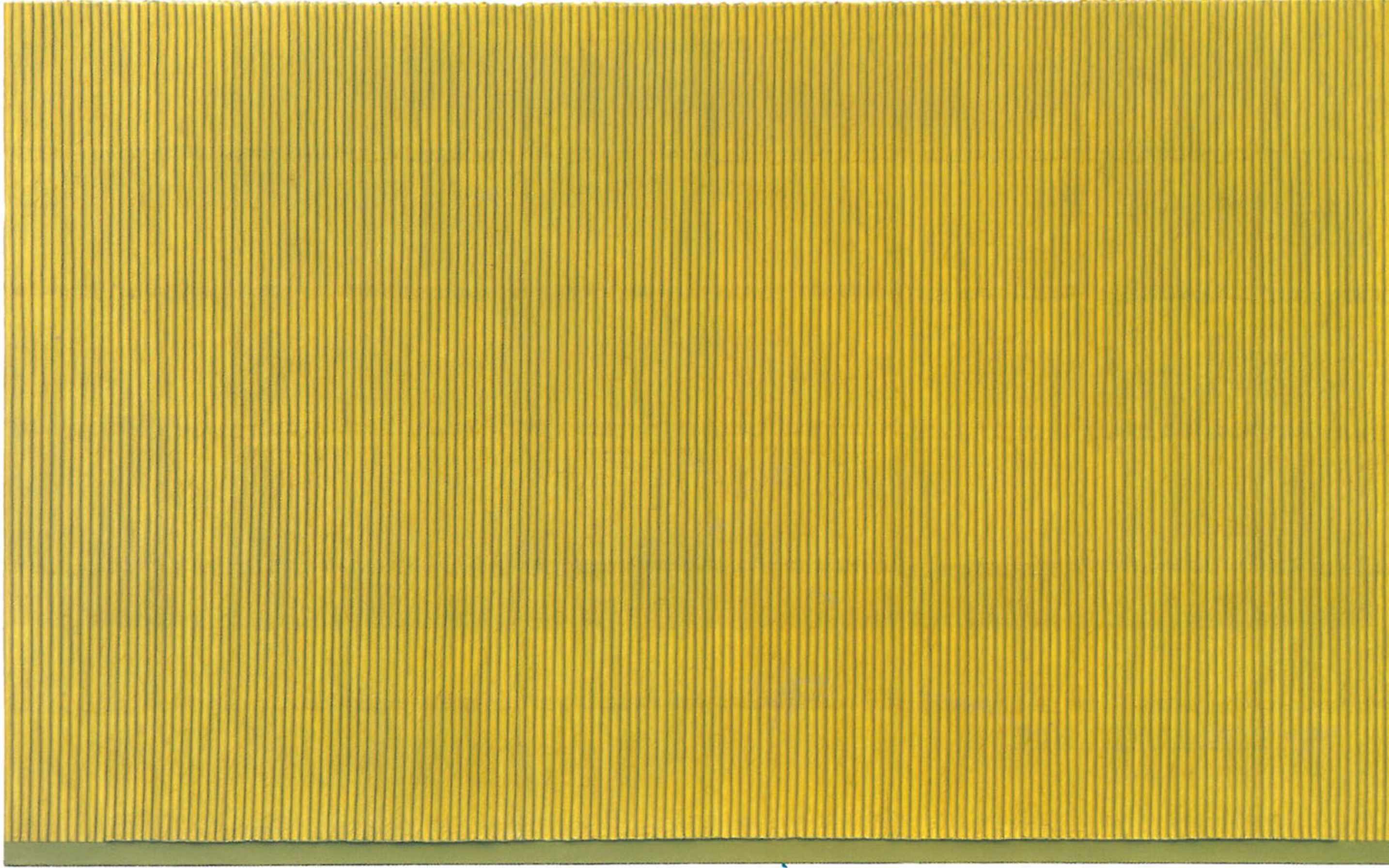
세계비엔날레 속 한국작가 60

60 korean artists in the biennales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5

9 771975 643707
ISSN 1975-6437
05

104
201505



〈Ecriture No. 101027〉 2010 Mixed media With Korean Hanji Paper on Canvas 180×300cm



Park Seobo

박서보

파리비엔날레(1963)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박서보는 1931년 경북 예천에서 출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앵포르멜 운동을 기반으로 추상표현주의의 미학에 입각한 '원형질' 시리즈를 진행했으며, 이후 '허상' 시리즈, 70년대 묘법 회화로 작업을 발전시켜갔다. 초기 선과 획을 반복했던 것에 이어 80년대 이후에는 한지를 이용해 거대한 화면에 선긋기를 반복하는 새로운 모노크롬 회화를 창시했으며, 이 작업은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작가는 작품이 완성이후에도 시간성을 덧입으며 변화해간다고 말하는데 이로써 작가의 작업이 지니는 정신성은 서양추상회화의 그것과 달라진다. 박서보는 195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 학사를 졸업하고 2000년에는 동대학원에서 명예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 파리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상파울로비엔날레(1965), 카뉴국제회화제(1969, 1977), 베니스비엔날레(1988) 등의 다양한 국제비엔날레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Born in 1931, in Yechon, Park Seobo is the leader of Korean Monochrome Painting. He worked on the series of 'ECRITURE' based on Abstract Expressionism affiliated with Art Informel paintings, and passed to the 'illusion.' 'ECRITURE' series that started in 1970 is still ongoing. He characterized it in a way of painting light oil colors on the layered Korean paper, Hanji and the Park draws lines constantly with a pencil. He says that his work is changing with time passing, even after he completed it, and this makes the difference with Western Abstract paintings spiritually. The artist graduated Hongik University in 1954, and was granted the title of honorary professor. Started from Biennale de Paris(1963), he showed his work through many international exhibitions like, Bienal de São Paulo(1965) and Cagnes International Art Festival(1969, 1977).